

# 아동의 모 애착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효과

이현주<sup>1</sup>, 백진아<sup>2\*</sup>

<sup>1</sup>해바라기어린이집 원장, <sup>2</sup>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The Effect of Children's Attachment to Mother on Happiness: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Smartphone Dependence

Hean-Ju Lee<sup>1</sup>, Jina Paik<sup>2\*</sup>

<sup>1</sup>Director, Sunflower Kid Center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모 애착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에서 조사한 한국 아동패널 12차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그 중 1,143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했다.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Process Macro Model Number 4 분석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스마트폰 의존도와 자아탄력성의 간접효과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를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 애착은 아동의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모 애착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했다. 셋째, 아동의 모 애착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마트폰 의존도는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실천적 과제들을 제시했다.

**키워드** : 행복감, 모 애착, 스마트폰 의존도, 자아탄력성, 매개효과

**Abstract** The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y and smartphone depend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ttachment to mother and happiness. For the purpose, 1,143 research subjects were selected from the 12th data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survey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s for the analysis method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executed, while the mediating effect was analyzed by applying Process Macro Model Number 4 analysis. The indirect effect of ego resiliency and smartphone dependence were verified by using bootstrapping.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attachment to mother was found to increase their happiness. Second, ego-resilience was shown to play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ttachment to mother and happiness. Third, the effect of children's attachment to mother on happiness was partially mediated by smartphone dependence.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ed the various practical programs to improve children's happiness.

**Key Words** : Happiness, Attachment to mother, Smartphone dependence, Ego-resilience, Mediating effect

This article is excerpted from and revised of the doctoral dissertation of Hean-Ju Lee(2022).

\*Corresponding Author : Jina Paik(jpaik1@hanafos.com)

Received April 1, 2024

Revised April 23, 2024

Accepted June 20, 2024

Published June 28, 2024

## 1. 서론

아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고 이를 추구하며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 성장하기를 소망한다.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부모는 아동의 조화롭고 온유한 인격 발달을 위해 사랑과 이해 속에서 양육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다[1].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아동은 심리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아동의 행복감은 아동복지 분야의 주요한 연구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2021년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79.50점으로 이는 2년 전보다 9점이 낮아진 수치이다[2]. 따라서 아동이 전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학문적 관심 확대와 심층적인 연구들이 적극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행복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원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속된 사회 안에서 가지는 궁극적인 목표이자 지향하는 가치이다[3]. 행복감은 삶의 질,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4], 포괄적인 의미인 안녕감과 서로 교환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5].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주요한 영향요인은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6]. 특히 부모애착은 아동의 성장 발달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부모와의 친밀하고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아동의 삶의 질과 심리적 안녕감,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7,8]. 반면에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은 높은 수준의 우울감 및 불안감 형성에 영향을 준다[9,10]. 아동기에 고착된 부모와의 애착 행동 방식은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 및 노년기 성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11,12]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아동의 부모애착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함께 아동의 삶의 다양한 부분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부모애착이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모 애착은 특별히 주목받는 변수이다[13,14]. 아동의 부모 애착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부 애

착과 모 애착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변수로 다뤘지만, 최근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13,15,16]. 특히, 아동기는 주로 모와의 관계에서 신체적·정서적 돌봄을 받으며 자신의 존재 가치와 타인에 대한 이해 방법을 터득하기 때문에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상호작용과 애착이 매우 중요하다[17].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부모와의 애착 중 어머니와의 좋은 관계와 친밀성이 아동의 발달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8].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모 애착을 중심으로 아동의 행복감을 분석하는 것이 더 의미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는 아동의 행복감을 설명하는 독립 변수로 모 애착을 선정하였다.

자아탄력성도 아동의 발달단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제시된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삶의 변화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도전과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고 적응하도록 돕는 심리적 자원이자[19]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설명된다[20].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와 일관된 양육방식 및 지지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아가 탄력적인 아동은 어떤 어려움이나 낮은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잘 적응하며 스트레스 상황도 잘 이겨내 심리적 행복감도 증가한다[21,22]. 즉, 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갖을수록 아동의 높은 자아탄력성 형성에 도움이 되고, 높아진 자아탄력성은 아동이 외모나 가족, 친구 및 학교생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모 애착과 아동의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중요한 매개변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예측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아탄력성이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스마트폰 의존도는 아동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다.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의 97.6%가 스마트폰을 사용해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23]. 스마트폰 의존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고 다른 중요한 사회적 관계를 무시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하며 자신감 상실과 우울감 등을 초래한다[24]. 특히, 스마트폰 의존은 학령기 아동의 인지적, 신체적, 사회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25,26].

스마트폰 의존도는 아동의 심리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행복감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부모와의 안정적인 친밀한 애착관계와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 등 부모 관련 요인들은 스마트폰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설명된다[27,28]. 즉, 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애착 형성은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고, 이는 아동의 행복감을 높여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사회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급증하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와의 애착 정도가 스마트폰 의존도 감소와 아동의 행복감 증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의존도가 아동의 성장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주목해 모 애착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모 애착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의존도와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매개 변수로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아동의 삶의 질과 관련된 심리적·사회적 자원과 가정 환경적 자원을 지원하는 실천적 제언과 프로그램의 개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모 애착은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 문제 2> 모 애착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매개변인으로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 문제 3> 모 애착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매개변인으로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모 애착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 및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 2.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함과 동시에 모 애착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본 연구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에서 조사한 12차 한국 아동패널 자료(2019)

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아동의 발달 특성과 양육실태, 부모 특성, 육아지원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008년 1차 조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12차) 자료를 사용하였고, 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만 11세 연령의 아동 1,384명 중 무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을 한 241명을 제외한 1,143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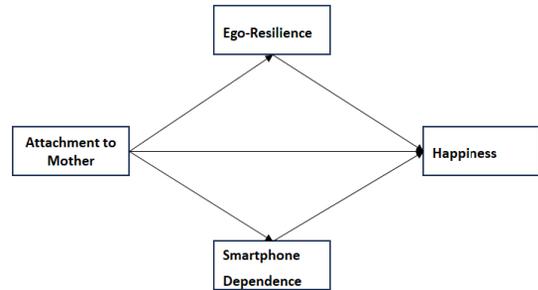


Fig. 1. Proposed model

### 2.3 측정 도구

#### 2.3.1 모 애착

독립변수인 모 애착 척도의 측정을 위해 Armsden & Greenberg[29]에 의해 개발된 청소년 또래애착척도((IPPA)를 Ouk[30]가 수정·보완한 문항에서 부모 애착과 관련된 내용을 모 애착 척도로 활용한 한국아동패널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모 애착 척도는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4문항을 제외하고 총 8문항을 분석에 활용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아니다' 부터 '5점 항상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설계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은 모와 친밀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뜻한다. 모 애착 척도의 신뢰도인 Chronbach's  $\alpha$  계수는 .881로 나타났다.

#### 2.3.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 & Kreman[31]이 개발하고 Yoo et al.[32]의 연구에서 수정·보완된 문항을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 사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 매우 그렇다'의 Likert 4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의 신뢰도인 Chronbach's  $\alpha$  계수는 .843로 나타났다.

### 2.3.3 스마트폰 의존도

스마트폰 의존도 척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33]에서 개발한 청소년용 스마트폰 중독 척도(S-척도)를 사용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2문항을 제외하고 13문항을 최종 분석에 활용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4점 매우 그렇다'의 Likert 4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의존도의 신뢰도인 Chronbach's  $\alpha$  계수는 .901로 높게 나타났다.

### 2.3.4 행복감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아동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MCS[34]를 사용한 아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행복감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1점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부터 '4점 매우 행복해요'의 4점 Likert 척도로 설계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행복감 척도의 Chronbach's  $\alpha$  계수는 .756로 나타났다.

## 2.4 분석방법

본 연구는 모 애착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WIN 23.0과 PROCESS Macro V3.5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PROCESS Macro Model Number 4를 적용하여 자아탄력성 및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인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아동의 성별은 '여자' 550명(48.1%), '남자' 593명(51.9%)으로 남자의 비율이 더 높게 분포하고 있다. 모 연령은 '30대 이하' 259명(22.7%), '40대 이상' 884명(77.3%)으로 40대 이상의 비율이 30대 이하보다 더 많음을 확인했다. 모 취업/학업 상태는 '미취업 및 미학업'이 461명(40.3%)이고, '취업 및 학업 중'은

682명(59.7%)으로 아동의 어머니의 절반 이상이 취업하였거나 학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 293명(25.6%), '전문대졸' 334명(29.2%), '4년제 대졸 이상' 516명(45.1%)으로 70% 이상 아동의 어머니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임을 볼 수 있다. 가정형편은 '못 산다' 50명(4.4%), '보통' 441명(38.6%), '잘 산다' 652명(57.0%)으로 대다수 아동이 경제적으로 보통 이상 수준의 가정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Variable	Section	n	%
Gender	Boy	593	51.9
	Girl	550	48.1
Mother's Age	Under 30s	259	22.7
	Over 40s	884	77.3
Moter's Employment Status	Employment /Study	682	59.7
	Not employed	461	40.3
Mother's Education	Under high school	293	25.6
	College	334	29.2
	Over university	516	45.1
Economic Level	Bad	50	4.4
	Normal	441	38.6
	Good	652	57.0

### 3.2 기술통계 분석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행복감 변수의 평균값은 3.254(sd= .442), 모 애착 변수의 평균값은 4.016(sd= .702), 자아탄력성 변수의 평균값은 3.030(sd= .446), 스마트폰 의존도 변수의 평균값은 1.701(sd= .459)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첨도와 왜도를 분석한 결과, 절대값이 7과 3을 초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행복감, 모 애착, 자아탄력성, 스마트폰 의존도 변수는 모두 정규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	Mean	S.D	Skew	Kurt
Happiness	3.254	.442	-.436	.006
Attachment to Mother	4.016	.702	-.574	-.079
Ego-Resiliencce	3.030	.446	.012	-.016
Smartphone Dependence	1.701	.459	.187	-.840

### 3.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모형의 주요 변수인 모 애착과 스마트폰 의존도, 자아탄력성, 아동의 행복감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아동의 행복감은 모 애착( $r = .360, p < .01$ ), 자아탄력성( $r = .513, p < .01$ )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스마트폰 의존도와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 = -.166, p < .01$ ). 모 애착은 자아탄력성( $r = .369, p < .01$ )과 정(+)적인 상관관계, 스마트폰 의존도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r = -.157, p < .01$ ). 스마트폰 의존도는 자아탄력성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r = -.107, p < .01$ ).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1)	2)	3)	4)
Happiness	1			
Attachment to Mother	.360**	1		
Ego-Resilience	.513**	.369**	1	
Smartphone Dependence	-.166**	-.157**	-.107**	1

1) Happiness 2) Attachment to Mother 3) Ego-Resilience  
4) Smartphone Dependence \* $p < .05$ , \*\* $p < .01$ , \*\*\* $p < .001$

### 3.3 연구모델의 분석결과

#### 3.3.1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주요 변수인 모 애착과 자아탄력성 및 행복감의 경로별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4로 제시하였고, 자아탄력성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모델 1에서 모 애착은 자아탄력성( $\beta = .369, p < .001$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모와의 애착이 친밀하게 잘 이루어질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델 2에서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행복감( $\beta = .198, p < .001$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에너지가 넘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며 의지가 강하면 자아탄력성이 높아져 가족과 친구를 긍정적이고 즐겁게 인식하게 되고 행복감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모 애착은 자아탄력성을 통해 행복감( $\beta = .441, p < .001$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델 3에서 모 애착은 아동의 행복감( $\beta = .360, p < .001$ )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아동의 감정을 존중해 주고 있는 그대로의 아동을 인정하게 되면 애착적인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아동이 학

교 공부와 생활에 관해서도 편안하고 안정된 기분을 갖게 되어 행복감이 상승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Table 4. Mediated effect**

Model	Path	Coeff	Standard Coeff	95% C.I.	F / R <sup>2</sup>
				LLCI~ULCI	
Model 1	X→M	.235	.369	.200~.269	179.901*** /.136
Model 2	M→Y	.125	.198	.092~.158	241.379*** /.298
	X→M→Y	.437	.441	.385~.488	
Model 3	X→Y	.227	.360	.193~.261	170.349*** /.130

Y=Happiness, X=Attachment to Mother  
M=Ego-Resilience / \* $p < .05$ , \*\* $p < .01$ , \*\*\* $p < .001$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 변수는 모 애착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 $\beta = .360 \rightarrow \beta = .441$ ), 부분 매개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아탄력성의 간접효과를 살펴 보면 effect = .102, Boot LLCI = .083, Boot ULCI = .123 으로 95% 신뢰수준에서 신뢰구간 값이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5. Indirect effect**

Path	Effect	Boot S.E	95% C.I.
			Boot LLCI~ULCI
Indirect Effect	.102	.010	.083~.123

#### 3.3.2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효과

모 애착과 스마트폰 의존도, 행복감의 경로별 영향력과 스마트폰 의존도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는 Table 6, 7과 같다. 먼저, 모델 1에서 모 애착은 스마트폰 의존도( $\beta = -.157, p < .001$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아동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격려해 줄수록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스마트폰 의존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설명된다.

모델 2에서 스마트폰 의존도는 아동의 행복감( $\beta = -.112, p < .001$ )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PC나 스마트폰에 빠져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자주 거짓말을 하는 등 스마트폰 의존이 높아질수록 하루 일과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행복감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모 애착은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매개로 하여 행복감( $\beta = .343, p < .001$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이 어머니와 애착관계를 잘 형성할

수록 스마트폰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낮아진 스마트폰 의존도는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모델 3의 분석결과, 모 애착은 아동의 행복감( $\beta = .360, p < .001$ )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Mediated effect

Path	Coeff	Standard Coeff	95% C.I.		F / R <sup>2</sup>
			LLCI	ULCI	
Model 1 X→M	-.102	-.157	-.140	~-.065	28.682*** /.025
Model 2 M→Y	-.108	-.112	-.161	~-.056	94.489*** /.142
Model 2 X→M→Y	.216	.343	.182	~.250	
Model 3 X→Y	.227	.360	.193	~.261	170.349*** /.130

Y=Happiness, X=Attachment to Mother

M=Smartphone Dependence / \* $\alpha < .05$ , \*\* $\alpha < .01$ , \*\*\* $\alpha < .001$

이상의 결과를 통해 스마트폰 의존도는 모 애착과 아동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매개 요인으로( $\beta = .360 \rightarrow \beta = .343$ )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스마트폰 의존도의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 의존도는  $effect = .011$ , Boot LLCI = .005, Boot ULCI = .019로 95% 신뢰수준에서 신뢰구간의 값이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이 검증되어 스마트폰 의존도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7. Indirect effect

Path	Effect	Boot S.E	95% C.I.	
			Boot LLCI	ULCI
Indirect Effect	.011	.004	.005	~.019

#### 4.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모 애착과 행복감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자아탄력성과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아동의 행복감은 자아탄력성이나 스마트폰 의존도와 같은 개인적 요인과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로 드러나는 가정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 애착은 아동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어머니와의 친밀한 애착관계를 형성할수록 행복감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beta = .360, p < .001$ ). 이는 아동의 부모애착 및 부모 지지가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함양되는 것으로 나타

난 선행연구[17,18,35] 결과들과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와의 밀접한 애착은 아동의 심리적인 안정과 긍정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둘째, 모 애착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모 애착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증진되고( $\beta = .369, p < .001$ ),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아동의 행복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98, p < .001$ ). 모 애착과 아동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부분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적인 부모애착이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탄력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28,36]를 뒷받침한다. 또한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증진되고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28,37,38]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내면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모 애착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마트폰 의존도는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 애착이 높을수록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아지고( $\beta = -.157, p < .001$ ),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으면 아동의 행복감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beta = -.112, p < .001$ ).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모 애착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여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아동이 부모와 서먹하고 불편한 관계를 맺을수록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의존성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27,28,39] 결과와 스마트폰 이용 정도와 행복감 간에 부정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40,41] 결과들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및 비대면 활동이 더욱 가속화되었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제나 강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적절한 교육 활용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한 사회복지의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과 모의 애착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가정과 사회적 지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과 모의 애착관계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부모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현실성 있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및 지역사회 내에서 영유아기부터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머니와 자녀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소통 대화 기법 프로그램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꾸준히 개설될 필요가 있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보편화되어 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어 서로 간에 긍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모와 자녀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증대하기 위해 일/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지원이 강화되고, 가족친화적인 문화형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하다[42]. 어머니는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양적인 시간 할애뿐 아니라 밀접하게 교감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질적 향상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동이 문제 상황에 적절하게 처할 수 있도록 아동의 발달단계 특성에 따른 맞춤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춘기 초기를 경험하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경우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인식하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맞는 자아탄력성 향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훈련시키며 보다 효율적인 문제해결 전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38]. 또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영국의 '다리 만들기 프로젝트(Building Bridges)'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세대 교환 및 부모-자녀 간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과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43].

셋째, 어머니와의 애착이 원만할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이 스마트폰 이용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녀-부모 모두에게 상담교육을 통한 개입도 요구된다[44].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는 피할 수 없지만 스마트폰 의존이 아동의 행복감을 낮추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 미디어 윤리교육, 스마트폰 올바른 사용지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도화된 학교복지지원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아동 스스로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형태와 의존도를 점검할 수 있는 규정과 장치들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행복'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과 성찰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행복은 특정 조건이나 결과의 축적이[45] 아니라 다양한 이해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들이 스스로 행복해지려는 연습과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의 행복감에 주목하는 교육계획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아동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예술체험활동과 같은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46].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11세 연령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아동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 급별 주요한 발달적 특성에 맞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켜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풍성한 논의를 위해 주요 변수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변수들 간의 영향력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서 시간적 흐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아동의 행복감을 포함한 모 애착, 자아탄력성, 스마트폰 의존도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과정에서 동태적·유동적·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지녀 횡단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종단적인 연구로서 변화를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의 모 애착, 자아탄력성, 스마트폰 의존도, 행복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모 애착, 자아탄력성, 스마트폰 의존도를 선정하여 다양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심리발달에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자녀 양육 시간이 부족한 어머니들이 아동의 자아탄력성 향상과 스마트폰 의존도 완화 등의 다른 자원을 사용하여 아

동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상황이 확장되며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의존도가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요인임을 설명함으로써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 REFERENCES

- [1] International Center for Children's Human Rights. (2018).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1989)*.
- [2] Yonsei University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and Korea Bang Jung-hwan Foundation. (2021). *Korea's Child and Youth Happiness Index: Report on the Results of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Seoul: Korea Bang Jung-hwan Foundation.
- [3] E. Diener, M. Diener & C. Diener. (1995). Factors Predict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851-864.  
DOI : 10.1037//0022-3514.69.5.851
- [4] S. W. Kwon, A. H. Lee & I H. Song. (2012). A Study on Adolescent Happiness: Application of the Adolescent Resilience Model. *Studies on Korean Youth*, 23(2), 39-72.  
UCI : G704-001385.2012.23.2.001
- [5] K. S. Chae & H. J. Hwang. (2014).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s and Children's Perceived Happiness. *Journal of Korean Hyo Studies*, 20, 159-190.  
UCI : G704-SER000010223.2014.20.007
- [6] A. Bojanowska & A. M. Zalewska. (2016). Lay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The Experience of Well-Being: Are Some Conceptions of Happiness More Beneficial than Other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7(2), 793-815.  
DOI : 10.1007/S10902-015-9620-1
- [7] S. J. Kim, H. S. Doh, W. K. Lee & B. K. Park. (2016). The Pathways From Parent Attachment to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Through Peer Attachment and Romantic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7(5), 83-100.  
DOI : 10.5723/kjcs.2016.37.5.83
- [8] B. F. Piko & C. Hamvai. (2010). Parent, School and Peer-Related Correlates of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10), 1479-1482.  
DOI : 10.1016/j.childyouth.2010.07.007
- [9] S. Reis & B. F. Grenyer. (2002). Pathways to Anaclitic and Introjective Depression.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5(4), 445-459.  
DOI : 10.1348/147608302321151934
- [10] A. Besser & B. Priel. (2003). A Multisource Approach to Self-Critical Vulnerability to Depression: The Moderating Role of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4), 515-555.  
DOI : 10.1111/1467-6494.7104002
- [11] S. Y. Park & G. B. Han. (2020).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Perceived by High Schoolers: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Teacher Attach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7(1), 249-272.  
DOI : 10.21509/KJYS.2020.01.27.01.249
- [12] T. B. Holman, R. C. Galbraith, N. M. Timmons. A. Steed & S. B. Tobler. (2009). Threats to Parental and Romantic Attachment Figures' Availability and Adult Attachment Insecurity. *Journal of Family Issues*, 30(3), 413-429.  
DOI : 10.1177/0192513X08325013
- [13] S. J. H Huh & H. C. Choi. (2018). Mediating Effects of Hop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to Mother and Life Satisfaction in Children. *The Journal of Education*, 38(1), 189-216. DOI : 10.25020/je.2018.38.1.189
- [14] X. Jiang, E. S. Huebner & K. H. Hills. (2013). Parent Attachment an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Psychology in the Schools*, 50(4), 340-352.  
DOI : 10.1002/pits.21680
- [15] H. C. Choi, Y. I. Kang & B. S. Kim. (2012). Validation of Korean Attachment to Mother Scale for Childre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3(4), 1697-1713.  
DOI : 10.15703/kjc.13.4.201208.1697
- [16] J. Y. Nam & C. K. Kim. (2015). The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Peer Attachment on Daily Stress from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trinsic

- Needs Satisfaction.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1(2), 505-526.  
UCI : G704-000501.2015.31.2.022
- [17] K. M. Lee & K. B. Han.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ttachment and Subjective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ers: Mediating Rol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social Behavio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2), 375-394.  
UCI : G704-000387.2014.21.12.012
- [18] D. G. Sung & C. K. Kim. (2015). The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Teacher Attachment on Children's Happines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Higher Grades : With a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Abilit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6(4), 129-142.  
DOI : 10.5723/KJCS.2015.36.4.129
- [19] H. L. Choi, J. S. Lee & Y. K. Moon. (2012). The Effects of Youth Circle Activity Satisfaction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9, 23-45.  
UCI : G704-002141.2012.9.1.005
- [20] E. C. Klohnen.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DOI : 10.1037/0022-3514.70.5.1067
- [21] A. R. Choi & Y. S. Lee. (2015).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and Life Stress of Children in Response to the Relation between the Happiness of Mother and the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 Child.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6(1), 337-351.  
DOI : 10.15703/kjc.16.1.201502.337
- [22] H. Y. Shin & J. H. Kim. (2020).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Daily Hassles and Self-Resilience on Their Happines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9(6), 837-846.  
DOI : 10.5934/kjhe.2020.29.6.837
- [23]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1). *2021 Survey on Dependence on Smartphones*. Sejong: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24] J. L. Han & G. H. Hur. (2004).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Mobile Phone Addiction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8(6), 138-165.
- [25] L. Beland & R. J. Murphy. (2014). *III Communication: Mobile Phones & Student Performance*,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26] J. S. Radesky, J. Schumacher & B. Zuckerman. (2015). Mobile and Interactive Media Use by Young Children: The Good, the Bad, and The Unknown. *Pediatrics*, 135(1), 1-3.  
DOI : 10.1542/peds.2014-2251
- [27] M. A. Lee & H. J. Suh. (2018). The Effects of the Parent-Children Relationship and Peer Attachment on Mobile Phone Dependency of Adolescent Using Community Child Center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16(2), 87-107.
- [28] H. J. Lee. (2023). The Effect of Attachment to Mother's on Happiness of Children's - The Mediating Effect of Smartphone Dependence and Ego-Resili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 [29] G. C. Armsden & M. T. Greenberg.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DOI : 10.1007/BF02202939
- [30] J. Ouk. (1998).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ompetence.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31] J. Block & A. M. Kermen.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DOI : 10.1037//0022-3514.70.2.349
- [32] S. K. Yoo, S. H. Hong & B. Y. Choi. (2004).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ttachment, and Existential Spirituality Between Family Risks and Adapta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8(1), 393-408.  
UCI : G704-000199.2004.18.1.022
- [33]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

- 2011 Survey on Dependence on Smartphones. Daegu: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34] MCS. (2008).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  
<http://www.cls.ioe.ac.uk/page.aspx?&sitesectionid=957&sitesectiontitle=Surveys+and+documentation>
- [35] S. D. Han. (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Which has Affect on the Happiness, of Self Elasticity and the Social Support Felt by Children.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1(1)*, 111-134.
- [36] H. K. Cho. H. Y. Min. (2012). Father Attachment/Mother Attachment and Ego-Resiliency as Mediators of Self-Competence.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30(5)*, 17-27.  
 DOI : 10.7466/JKHMA.2012.30.5.017
- [37] E. M. Sung & G. H. Kim. (2013).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nalysis among Happiness, Personal Traits, and Environmental Traits of Adolescent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udies on Korean Youth, 24(4)*, 177-202. UCI : G704-001385.2013.24.4.008
- [38] A. Y. Lim & M. H. Park.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Coping on Correlation between Ego Resilience and Happiness with Elementar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6(2)*, 137-154.  
 DOI : 10.22839/adp.2017.6.2.137
- [39] M. S. You & M. K. Kwon. (2011). The Comparative Study on Mother's Rearing Attitude and Communication among Mother and Student between Mobile Phone Addiction Group and Non-addiction Group: Middle School Students. *The Academic Society of Parent-Child Health, 14(2)*, 76-83.
- [40] K. M. Kim & Y. S. Youm. (2014), Korean students' smartphone usage and happiness: A gender approach to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 relationship. *Information Society & Media, 15(3)*, 31-56.  
 UCI : G704-SER000008957.2014.15.3.001
- [41] D. H. Jang & J. E. Kim. (2018). The Mediating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Between Adolescents' Interpersonal Ability and Happine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HSS21), 9(1)*, 1-10. DOI : 10.22143/HSS21.9.1.1
- [42] J. S. Seo. (2017). The Influence of Parent Attachment on Happiness of Children: Focusing on Mediation Effects of Peer Relationship. *The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 6(1)*, 145-165.  
 DOI : 10.20497/jwce.2017.6.1.145
- [43] T. H. Kim. (2020). Influence of Relational Characteristics and Activity Participation of Adolescents on Subjective Well-Being: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Forum For Youth Culture, 62*, 82-119.  
 DOI : 10.17854/ffyc.2020.04.62.81
- [44] S. H. Lee, J. S. Lee & I. S. Oh. (2021).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Adolescents' Social Withdrawal and Smartphone Dependency Between Parents' Negative Child-rearing Attitudes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Among Youth. *The Educational Research for Tomorrow, 34(1)*, 177-200. DOI : 10.35283/erft.2021.34.1.177
- [45] Seoul National University Happiness Research Center. (2011). *A Happiness Textbook*.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Happiness Research Center.
- [46] S. H. Kim. (2022).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Self-esteem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Journal of Wellness, 17(1)*, 357-363.  
 DOI : 10.21097/ksw.2022.2.17.1.357

이 현 주(Hean-Ju Lee)

[정회원]



- 2020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 석사)
- 2023년 2월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사회복지학 박사)
- 2012년 4월~현재 : 해바라기어린이집 원장

- 관심분야 : 영유아, 아동·청소년, 가족
- E-Mail : hjlee-1969@hanmail.net

백 진 아(Jina Paik)

[정회원]



- 1982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문학사)
- 1984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석사)
- 1995년 8월 : University of Notre Dame(사회학박사)

- 2006년 3월~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가족, 노동, 여성
- E-Mail : jpaik1@hanafos.com